

2/ 마돈나 선풍, 여성 자객, 오자와 겔즈

일본 여성 정치인 총원의 문제

정미애



정미애(鄭美愛)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선임연구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筑波)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일본의 정책 과정, 시민사회이며, 최근에는 기존 연구 분야의 연장선상에서 젠더와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일본 민주당의 '중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의 단일민족국가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 「일본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공생정책의 간극」 등이 있다.

1. 들어가며

일본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낮은 국가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 수준이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가 위상에 비추어 보면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분야의 여성 과소 대표성은 한국도 안고 있는 문제지만, 한국의 경우는 여성운동계의 노력으로 여성할당제, 비례대표 교호순번제와 같은 제도화를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 여성의 의회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가 아니었고, 현재도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을 비롯한 소수의 여성단체들만이 여성의 의회 진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¹

이러한 경향은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일본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우선, 유권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성맹적(gender blind)으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고 균질적인 유권자로 상정해 불가지적인 존재로 다루어왔다.”² 이에 따라 유권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선거권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 연구 성과도 거의 없지만 그나마 있는 출판물들도 여성의 의회 진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주장보다는 주로 성공한 여성 정치가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일본임상정치학회가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펴냈다는 『일본의 여성 정치가와 정치지도』라는 책을 보면, 여성 정치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1부에서는 「국정 레벨에서의 여성 정치가」로서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를 비롯한 6명의 여성 중·참의원의원을, 제2부에서는 「지방 레벨에서의 여성 정치가」로서 도모토 아키코(堂本暁子) 지바현(千葉県)지사를 비롯한 6명의

1 정미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 2013, 117~119쪽.

2 이지영,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인가」,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3호, 2013, 133쪽.

여성 현지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그녀들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정치 역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³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은 『여성이 정치를 바꾸었을 때-의원·시장·지사의 경험』이라는 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⁴ 이 책에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딪치는 벽을 뛰어넘은 선구자적 여성 정치인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사회의 통념과 벽을 ‘뛰어넘은’ 여성들의 경험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역할 모델(role model)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성공 스토리 중심의 접근은 여성 정치 참여의 문제를 개인 의지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일본의 여성 정치 참여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연구는 지방의회에 여성이 진출하는 순기능적 역할 및 의원 임기를 2~3회로 제한하는 로테이션제도 등과 같이 한국에 시사점이 있는 사례로서, ‘대리인운동’ 혹은 ‘생활자정치’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생활자네트워크’(현재는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에 치중되어 있다.⁵

한편 신경에는 일본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⁶ 이 글에서는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여성이 공천을 받기에 불리한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여전히 강한 성역할 분담 의식, 그리고 이로 인한 여성 인재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 의원

3 濱賀祐子 編, 『日本の女性政治家と政治指導』, 志學社, 2013.

4 五十嵐暁郎・ミランダ A. シュラーズ, 『女性が政治を変えるとき—議員・市長・知事の実験』, 岩波書店, 2012.

5 나일경,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과 집합행위의 딜레마: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운동그룹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2007; 박희숙, 「일본의 생활정치의 과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2009; 정미애·문경희, 「여성 정치활동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여성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79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0; 하세현·윤이화,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일본의 지역정당 ‘도쿄생활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52집 제2호, 2012; 이지영,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활동제의 대안인가」, 2013; 정미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3.

6 신경에, 「일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과 과제」, 『日本文化研究』 제24輯, 2007.

의 적극적 역할과 결속, 국회조사회를 통한 선진국 사례 조사를, 정당 차원에서는 여성 친화적 당 조직으로의 개혁, 여성 할당제 도입, 당내 공천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 친화적 경선제도의 정착, 여성 정치 지도자 후보의 발굴과 육성을, 여성단체 차원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활동,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능 강화, 여성 정치가 후보 발굴과 육성, 양성평등 의식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지적과 제언은 모두 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병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여성 정치인들이 뉴스 캐스터 출신이라거나 “최초의 여성○○” 등과 같이 화제성이 있는 인물로, 당 총재나 다선의 거물급 중진 남성 정치인의 낙점을 받아 출마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의 여성 정치인 충원 과정에 주목하여 그것의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에 의해 주도된 우정(郵政) 민영화를 둘러싼 중의원 선거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른바 ‘여성 자객’에 대한 문제점이다.

일본어사전에 의하면 자객의 첫 번째 의미는 “암살자 또는 범죄 조직에서 살해를 담당하는 자”이고, 두 번째 의미는 “당의 규율에 반해 탈당한 의원에 대해 선거에 공천하지 않고 실각시킬 목적으로 당 본부가 보낸 대립 후보”다. 두 번째 의미는 200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본부가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에 대해 취한 조치에서 비롯된 의미라는 부연설명이 있다. 어찌되었든 자객은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내려보낸 자로 명령을 받들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섬뜩한 단어가 왜 유난히 ‘여성’ 후보들에게 붙여져 일본 선거에서 ‘자객=여성’으로 등식화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치 현상과 용어 사용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글을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일본의 여성 정치 대표성의 현황을 살펴본다. 양적인

측면에서 국회(중의원, 참의원)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추이를 알아보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 의원이 국회와 역대 내각에서 맡은 직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은 여성할당제나 비례대표교호순번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일본적 정치 현실에서 여성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에 진입했는지 그 충원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정치인들의 등장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1989년 참의원 선거, 1990년 중의원 선거, 2005년 중의원 선거, 2009년 중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89년, 1990년 선거에서 사회당의 ‘도이(土井) 칠드런’이 ‘마돈나 선풍’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자민당 ‘고이즈미 칠드런’인 ‘여성 자객’이, 2009년에는 민주당 ‘오자와(小沢) 칠드런’인 ‘오자와 겔즈’가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들 선거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여성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각 선거에서 여성 정치인이 선거의 ‘홍행’을 위해 ‘활용’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주목하여 특정 정치인의 ‘칠드런’으로서 ‘자객’ 역할도 마다않는 일본의 여성 정치인이 갖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들의 등장과 후퇴가 일본의 여성 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밝혀둔다.

2. 일본 여성의 정치 대표성

1)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

2014년 5월 1일 현재, 세계의원연맹(IPU)의 여성 의원 비율 순위에 의하면 일본은 189개국 중 132위로 매우 낮다.⁷ 일본 국회에서의 여성 의원 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4년 현재 중의원의 경우, 의원정수

7 Inter-Parliament Union (<http://www.ipu.org/wmn-e/arc/classif010514.htm>).

〈표 1〉 일본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수와 비율

구분	의원 수	의원정수	비율(%)	시점
중의원	39 (선거구 15, 비례 24)	480	8.1	2014. 5. 16 현재
참의원	39 (선거구 19, 비례 20)	242	16.2	2014. 6. 8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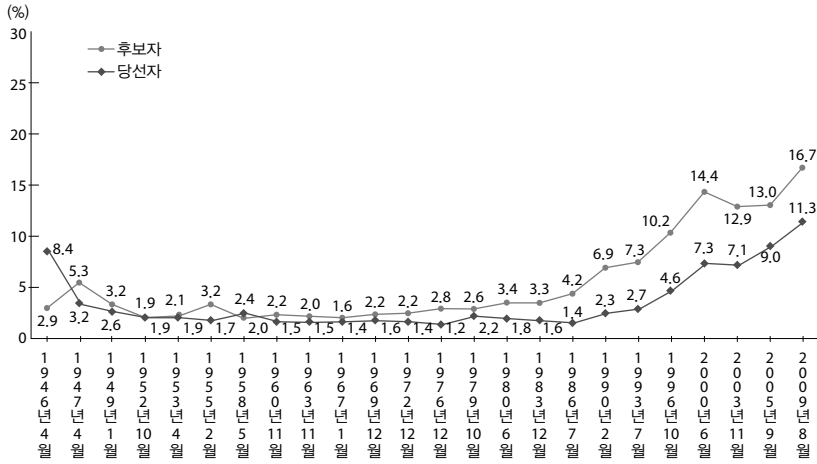
자료: 일본 중의원, 참의원 홈페이지의 의원일람을 참조하여 작성.

출처: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shiryo/kaiha_m.htm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in/186/giinsu.htm>

480명 중 여성 의원은 39명으로 8.1%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중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당선된 여성 의원은 15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자민당 소속이다.⁸ 다시 말해 자민당을 제외한 타 정당의 여성 중의원 의원은 전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참의원은 의원정수 242명 중 여성 의원은 39명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6.2%다. 선거구 당선이 19명, 비례대표 당선이 20명으로 중의원에 비해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 선거구 당선 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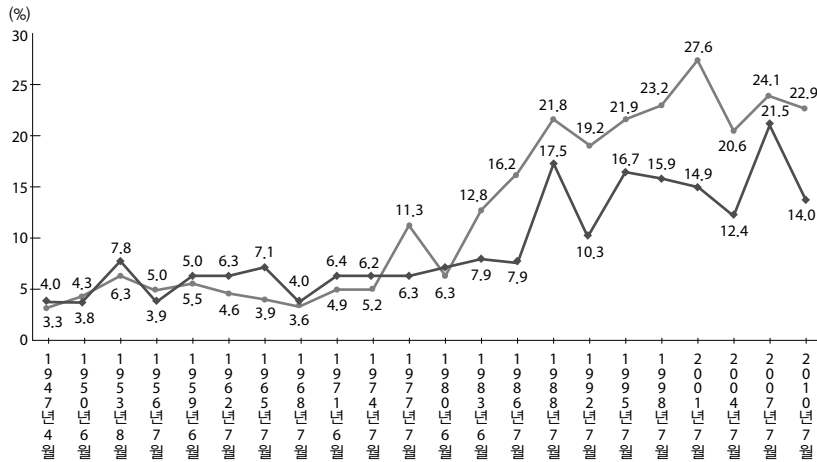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당선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45년 패전 이후 GHQ의 점령 개혁 하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이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거의 확대되지 않았다. 1946년 이래 여성 의원의 수는 줄곧 한 자리수를 유지해왔고, 여성 의원의 비율도 1~2%를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왔다. 다행히 1996년 제41회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병립제’가 도입되고부터 여성 의원의 비율(중의원 기준)은 1996년 4.6%, 2000년 7.3%, 2003년 7.1%, 2005년 9.0%, 2009년 11.3%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성에게 불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 이유는 2005년 중의원선거부터 일부 정당에서 여성 후보자를

⁸ 2014년 5월 현재 자민당의 여성 의원은 선거구 15명, 비례대표 8명으로 모두 23명.



출처: 『男女共同参画白書』平成 23年版.

〈그림 1〉 중의원 선거 후보자 · 당선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출처: 『男女共同参画白書』平成 23年版.

〈그림 2〉 참의원 선거 후보자 · 당선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비례대표명부의 상위에 올려놓는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비례대표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2>를 보면 참의원의 경우 여성 의원의 비율이 1947년의 제1회 참의원선거에서 4.0%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1.5%를 기록하여 중의원에 비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⁹

2) 국회·내각에서 여성 의원의 직책

(1) 국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의원 전체 회의이며 의회의 의사는 여기에서 결정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설위원회로,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별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명칭, 위원 수, 설치 목적 등을 정해 설치된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중의원에 10개, 참의원에 8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중·참 양원에 헌법심사회, 정치윤리심사회가 있고, 참의원에만 ‘국가통치 기구에 관한 조사회’와 ‘국민생활을 위한 디플레이션 탈각 및 재정 재건에 관한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상의 국회 구성에 따라 국회 내 상위직으로 중·참 양원에 각각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7명, 특별위원장(중의원 10명, 참의원 8명), 헌법심사회장 1명, 정치윤리심사회장 1명 그리고 사무총장 1명이 있게 되며, 참의원에 조사회장 2명이 더해져 모두 64명의 장(長)이 있다.

일본 정치사상 여성 국회의장은 중·참 양원에서 각각 한 명씩 있었다.

⁹ 중의원 선거·참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술은 정미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106쪽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표 2〉 일본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맡고 있는 직책

	역할	총수	여성
중의원 (2014. 1. 24. 현재)	의장	1	0
	부의장	1	0
	상임위원장	17	1
	특별위원장	10	0
	심사회장	2	0
	사무총장	1	0
	계	32	1
참의원 (2014. 5. 13. 현재)	의장	1	0
	부의장	1	0
	상임위원장	17	1
	특별위원장	6	4
	심사회장	2	0
	조사회장	2	0
	사무총장	1	0
	계	30	5

자료: 일본 중의원, 참의원 홈페이지의 간부일람을 참조하여 작성.

출처: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shiro/officer.htm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in/186/akuin.htm>

1993년에 당시 사회당 위원장이었던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중의원 의장에 당선되어 3년간 의장직을 수행했다(1993. 8. 6~1996. 9. 27). 이후 약 20년 만에 2004년 참의원에서 오기 지카게(扇千景)가 의장에 당선됨으로써 일본 정치사상 두 번째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2004. 7. 30~2007. 7. 28). 이로써 일본에서는 중·참 양원에서 모두 여성 의장이 나오게 되었다. 여성 부의장은 참의원에서 산토 아키코(山東昭子)가 부의장을 역임한 것이 유일하다(2007. 8. 7~2010. 7. 30).

2014년 현재, 여성 의원의 국회 내 상위직 진출 현황은 〈표 2〉와 같다. 중의원의 경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중 여성은 문부과학 위원장인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단 한 명이다. 참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 중 여성위원장은 후생노동위원장인 이시이 미도리(石井みどり) 한 명뿐이고,

특별위원장 중에는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인 다케야 도시코(竹谷とし子), 오키나와 및 북방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장인 하야시 구미코(林久美子),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장 고다 구니코(行田邦子),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위원장 렌호(蓮舫)의 4명이 있다.

(2) 내각

일본에서 여성 국무대신이 탄생한 것은 1960년이다. 당시 이케다(池田勇人) 내각에서 나카야마 마사(中山マサ)가 일본 정치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대신으로서 후생대신에 임명되었다. 이후 곤도 쓰루요(近藤鶴代)가 과학기술청 장관¹⁰으로 뒤를 이었으나, 나카소네(中曾根康弘) 내각에서 1984년 이시모토 시게루(石本茂)가 환경청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1963년부터 1984년까지의 20여 년간 여성 각료는 한 명도 없었다. 이시모토 이후에도 다케시타(竹下登) 내각(1987. 11. 6~1989. 6. 3), 우노(宇野宗佑) 내각(1989. 6. 3~1989. 8. 10)에서 여성 각료가 한 명도 없어서, 가이후(海部俊樹) 내각에서 모리야마 마유(森山真弓)가 환경청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 약 4년간 남성만의 내각이 유지되었다.

국무대신에 여성을 가장 많이 기용한 내각은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이었다.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여성 각료를 기용했다. 이어서 출범한 아베(安倍晋三) 1차 내각, 후쿠다(福田康夫) 내각에서는 4명의 여성 각료가 임명되어 역대 내각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내각에서 여성 각료들이 맡은 직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적’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환경, 후생, 교육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보면 첫 여성 각료인 나카야마 마사부터 현 아베 2차 내각의 모리 마사코(森雅子)에 이르기까지 여성 각료 대부분은 2001년

10 일본의 경우, 성(省)의 수장은 대신(大臣), 청(廳)의 수장은 장관.

〈표 3〉 일본의 역대 여성 각료

내각	이름	직책	정당	재임기간
이케다 내각	中山マサ	후생대신	자민당	1960. 7. 19 ~ 1960. 12. 8
	近藤鶴代	과학기술청 장관	자민당	1962. 7. 18 ~ 1963. 7. 18
나카소네 내각	石本茂	환경청 장관	자민당	1984. 11. 1 ~ 1985. 12. 28
가이후 내각	森山真弓	환경청 장관	자민당	1989. 8. 10 ~ 1989. 8. 25
		내각관방 장관		1989. 8. 25 ~ 1990. 2. 28
	高原須美子	경제기획청 장관	민간인	1989. 8. 10 ~ 1990. 2. 28
	山東昭子	과학기술청 장관	자민당	1990. 12. 29 ~ 1991. 11. 5
미야자와 내각	森山真弓	문부대신	자민당	1992. 12. 12 ~ 1993. 8. 9
호소카와 내각	赤松良子	문부대신	민간인	1993. 8. 9 ~ 1994. 4. 28
	久保田真苗	경제기획청 장관	사회당	1993. 8. 9 ~ 1994. 4. 28
	広中和歌子	환경청 장관	공명당	1993. 8. 9 ~ 1994. 4. 28
하타 내각	赤松良子	문부대신	민간인	1994. 4. 28 ~ 1994. 6. 30
	浜四津敏子	환경청 장관	공명당	1994. 4. 28 ~ 1994. 6. 30
무라야마 내각	田中眞紀子	과학기술청 장관	자민당	1994. 6. 30 ~ 1995. 8. 8
하시모토 내각	長尾立子	법무대신	민간인	1996. 1. 11 ~ 1996. 11. 7
	石井道子	환경청 장관	자민당	1996. 11. 7 ~ 1997. 9. 11
오부치 내각	野田聖子	우정대신	자민당	1998. 7. 29 ~ 1999. 10. 5
	清水嘉与子	환경청 장관	자민당	1999. 10. 5 ~ 2000. 4. 5
모리 내각	扇千景	환경청 장관	자민당	2000. 4. 5 ~ 2000. 7. 4
		건설대신		2007. 7. 4 ~ 2001. 1. 5
		운수대신, 홋카이도개발청 장관		2000. 12. 5 ~ 2001. 1. 5
	川口順子	국토교통대신	민간인	2001. 1. 6 ~ 2003. 9. 22
		환경청 장관		2000. 7. 4 ~ 2001. 1. 6
	川口順子	환경대신	민간인	2001. 1. 6 ~ 2001. 4. 26
		외무대신		2002. 2. 1 ~ 2004. 9. 27
고이즈미 내각	森山真弓	법무대신	자민당	2001. 4. 26 ~ 2003. 9. 22
	田中眞紀子	외무대신	자민당	2001. 4. 26 ~ 2002. 1. 30
	川口順子	환경대신	민간인	2001. 4. 26 ~ 2002. 9. 30
		외무대신		2002. 2. 1 ~ 2004. 9. 27
	遠山敦子	문부과학대신	민간인	2001. 4. 26 ~ 2003. 9. 22
	小池百合子	환경대신	자민당	2003. 11. 19 ~ 2006. 9. 26
		오кина와 및 북방 대책 담당대신		2004. 9. 27 ~ 2006. 9. 26
	小野清子	국가공안위원장, 청소년육성 및 저출 산대책 담당대신, 식품안전 담당대신	자민당	2003. 9. 22 ~ 2004. 9. 27
	南野知恵子	법무대신	자민당	2004. 9. 27 ~ 2005. 10. 30

내각	이름	직책	정당	재임기간
고이즈미 내각	猪口邦子	저출산 담당대신, 남녀공동참획 담당대신	자민당	2005. 10. 30 ~ 2006. 9. 26
아베 1차내각	大田弘子	경제재정 담당대신	민간인	2006. 9. 26 ~ 2007. 9. 25
	高市早苗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대신, 과학기술 담당대신, 이노베이션 담당대신, 저출산·남녀공동참 획 담당대신, 식품안전 담당대신	자민당	2006. 9. 26 ~ 2007. 8. 27
	小池百合子	방위대신	자민당	2007. 7. 4 ~ 2007. 8. 27
	上川陽子	저출산대책 담당대 신, 남녀공동참획 담 당대신	자민당	2007. 8. 27 ~ 2007. 9. 25
후쿠다 내각	大田弘子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	민간인	2007. 9. 26 ~ 2008. 8. 2
	上川陽子	저출산대책 담당대신, 남녀공동 참획 담당대신	자민당	2007. 9. 26 ~ 2008. 8. 2
	野田聖子	소비자행정추진 담당대신	자민당	2008. 8. 2 ~ 2008. 9. 24
	中山恭子	문부과학대신	자민당	2008. 8. 2 ~ 2008. 9. 24
아소 내각	野田聖子	소비자행정추진 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식품 안전 담당대신	자민당	2008. 9. 24 ~ 2009. 9. 16
	小淵優子	저출산대책 담당대 신, 남녀공동참획 담 당대신	자민당	2008. 9. 24 ~ 2009. 9. 16
하토야마 내각	千葉景子	법무대신	민주당	2009. 9. 16 ~ 2010. 6. 8
	福島瑞穂	저출산대책 담당대신	사민당	2009. 9. 16 ~ 2010. 5. 28
간 내각	千葉景子	법무대신	민주당	2010. 6. 8 ~ 2010. 9. 17
	蓮舫	행정쇄신 담당대신	민주당	2010. 6. 8 ~ 2011. 6. 27
	岡崎トミ子	국가공안위원장	민주당	2010. 9. 17 ~ 2011. 1. 14
노다 내각	蓮舫	행정쇄신 담당대신	민주당	2011. 9. 2 ~ 2012. 1. 13
	小宮山洋子	후생노동대신	민주당	2011. 9. 2 ~ 2012. 10. 1
	田中眞紀子	문부과학대신	민주당	2012. 10. 1 ~ 2012. 12. 26
아베 2차 내각	稲田朋美	규제개혁 담당대신	자민당	2012. 12. 26 ~ 현 재
	森雅子	저출산대책 담당대신	자민당	2012. 12. 26 ~ 현 재

자료: 首相官邸(<http://www.kantei.go.jp/jp/rekidainaikaku/>) 역대 내각 각료명부, 위키피디아(<http://ja.wikipedia.org>) '女性政治家' 참조(최종 검색일: 2014. 5. 10).

성청 재편 이전에는 환경청 장관,¹¹ 후생대신이 주를 이루었고, 2001년 이후에는 기존의 환경대신, 후생대신과 더불어 주요 성청의 각료가 아닌 담당대신¹²에 임명되었다. 담당대신의 담당 사항은 역시 ‘여성적’ 분야로 분류되는 저출산, 식품 안전, 소비 행정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당당히 의회에 입성한 여성 정치인도, 결국은 내각이라고 하는 더 높은 곳에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 벽에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3. 칠드런, 자객으로서의 여성 정치인

1) 마돈나 선풍을 일으킨 도이 칠드런

일본에서 여성 정치인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마도 ‘도이 붐’이 처음일 것이다. 도이 다카코는 일본 정치사상 최초의 여성 당수(黨首)다. 도이는 1986년에 사회당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1993년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중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언제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도이는 그녀 자신이 최초의 여성 당수이자 최초의 여성 중의원 의장이라는 의미에서 일본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여 정계에 진출시킴으로써 여성 정치계의 대모로 불린다.¹³ 도이가 추천하여 정계에 진출한 여성 정치인들은

11 2001년 성청 재편에 의해 환경청이 환경성으로 승격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청 장관은 환경대신이 되었다.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은 2007년.

12 담당대신은 내각부에 설치되는 특명 담당대신과 내각부 이외의 특명사항 담당대신이 있다. 특명 담당대신은 2001년 중앙 성청 재편 이후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신설된 직위로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이다. 특명(特命), 즉 법정사무나 정권의 긴급과제를 담당한다. 특명담당대신의 정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 금융 담당, 소비자 및 식품안전 담당은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 정식표기는 괄호 안에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내각부 특명담당대신(○○담당)」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지만, 「○○담당대신」으로 줄여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내각부 이외의 특명사항담당대신은 내각관방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국무대신이 겸임하기도 한다.

13 도이 다카코에 대한 상제는 정미애, 「도이 다카코: 평화헌법과 결혼한 일본 진보정치의 대모」, 김민정 외,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인간사랑, 2007 참조.

‘도이 칠드런’으로 불리는데, 가장 대표적 인물이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¹⁴ 현 사회민주당 부당수와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¹⁵ 민주당 의원이다.

1986년 사회당 위원장에 취임한 도이는 1989년 제15회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당수라는 신선함과 강한 리더십으로 ‘도이 붐’을 일으키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선거에서 도이는 여성 후보들을 대거 공인·추천했는데,¹⁶ 이들 여성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언론에서는 이를 ‘마돈나 선풍’이라고 표현했다. ‘도이 붐’과 ‘마돈나 선풍’으로 1989년 참의원 선거는 일본 정치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 후보, 여성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으로 자리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에서 여성 후보는 비례구, 선거구를 합쳐 22명이 당선되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22명이 그다지 대단한 성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까지 1983년과 1986년의 참의원



〈그림 3〉 ‘도이 붐’의 주인공 도이 다카코

14 후쿠시마 미즈호는 대표적인 ‘도이 칠드런’이지만 정계 입문은 ‘도이 붐’이 일었던 1989~1990년이 아니라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후 현재까지 참의원에서 3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하토야마 내각에서 저출산대책 담당대신을 역임했고, 2003년 도이 다카코가 사민당 당수직을 사임한 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사민당 당수를 지냈다.

15 쓰지모토 기요미는 후쿠시마 미즈호와 마찬가지로 대표적 ‘도이 칠드런’이지만 정계 입문은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부터다. 중의원 4선 의원으로 2010년 사민당을 탈당하여 현재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6 한국의 정당 공천에 해당하는 용어로 일본에서는 ‘공인’(公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인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정당은 추천 혹은 지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공인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나 무소속인 후보자를 ‘추천’한다. ‘지지’는 공인이나 추천에 비하여 지원의 정도가 약하다. 예를 들면 추천은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에 사람을 보내 직접 협력을 하지만, 지지는 조직 내에서 지원을 호소하는 데 그친다. 지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자가 입후보하면, 중앙의 다수 정당들이 유력 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이나 지지를 표명하기도 한다(권영주, 「일본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현상과 제도: 왜 무소속이 많은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2013, 47~48쪽; 정미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112~114쪽)

선거에서 각각 10명의 여성 당선자가 나온 것이 여성 최다 당선 기록이므로, 그 두 배를 넘는 22명의 여성 당선자가 나온 것은 일본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쾌거였다. 더욱이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성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자민 2, 사회 11, 공명 2, 공산 3, 무소속 2, 기타 2로 사회당의 여성 당선자가 전체 여성 당선자의 5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도이 붐’은 1989년 참의원 선거에 이어 이듬해 치러진 1990년 제39회 중의원 선거에도 계속되었고, 그에 힘입어 사회당은 의석을 크게 늘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선거에서 사회당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여성 후보는 도이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다.¹⁸ 당시 여성 당선자는 총 12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 7명의 당선자가 사회당이므로 가히 ‘도이 붐’에 의한 ‘마돈나 선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이 대패하면서 도이는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1992년 제16회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석을 유지하는 데 그쳐 ‘도이 붐’은 사그라지게 된다.¹⁹

2) 고이즈미 칠드런의 ‘여성 자객’

‘도이 붐’, ‘마돈나 선풍’에 이어 여성 정치인이 화제가 된 선거는 우정 민영화를 둘러싸고 전개된 2005년의 제44회 중의원 선거다. 2005년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 민영화 법안을 본회의에서 성립시킬 것을 공언하면서 법안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언명했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우선 중의원을 통과하기는 했으나, 자민당 의원 중 37명이 반대하고 14명이 기권하는 등 자민당 내의 반발이 많아 본회의에서의 법안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참의

17 「社党46, 自民は36 改選議席確定 89参院選」, 『朝日新聞』 1989/07/25.

18 「自民、安定多数を確保 社会が“大躍進” - 第39回総選挙」, 『毎日新聞』 1990/02/19.

19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참패하지만, 비자민 연립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연립정권에서 도이를 중의원 의장으로 추대함으로써 도이는 일본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다 (1993. 8. 6~1996. 9. 27). 1996년 사회당이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한 후, 도이는 1996. 9. 28부터 2003. 11. 15까지 사민당 당수를 역임했고, 2005년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정계를 은퇴했다(당선 12회).

원 본회의 표결에서도 자민당 의원 중 반대 22명, 기권 8명이 나와 부결되었다. 이에 고이즈미는 우정 민영화를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시마무라(島村宜伸) 농수산대신을 파면하면서까지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단행했다. 고이즈미는 우정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언명했다. 그리고 국회 표결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들을 공인하지 않고, 대신 이들 선거구에 우정 민영화 찬성과 후보를 내세웠다. 이렇게 해서 우정 반대파의 선거구에 공인받은 우정 찬성과 후보들은 고이즈미의 ‘자객’으로 불렸다.

‘자객’이라는 표현은 당시 자민당 중진의원으로서 우정 민영화 반대파였던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현재는 무소속)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자민당이 이른바 ‘조반(造反) 선거구’²⁰에 우정 민영화 찬성과 후보를 공천하는 데 대해 “조반하는 곳에 자객을 보내 서로 싸우게 해서 민주당을 당선시켜서 되겠는가”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이후 매스컴에서 ‘자객’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당수 토론에서 고이즈미가 ‘자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객’은 자민당이 우정 민영화 반대파에 세운 후보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자당 후보를 ‘자객’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면서 ① 자객은 ‘암살자’를 의미하고, 국정 선거 후보를 부르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 ② 자객에는 ‘살인자’라는 이미지가 있어 자민당 후보의 이미지 다운(image down)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언론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자객’이라는 표현은 외국 언론에도 “assassin”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선거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고이즈미는 우정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을 선과 악의 대결로 바꾸어놓음으로써 선거를 흥행시켰을 뿐 아니라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자객’은 선을 위해 악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로 비쳐지게 되었고, ‘자객’ 후

20 ‘조반’(造反)이란 반역, 반항 혹은 조직으로부터의 탈퇴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여기에서 ‘조반 선거구’란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 민영화를 반대하던 정치인의 지역구를 의미한다(편집자 주).



〈그림 4〉 고이즈미 총리와 대표적 ‘여성 자객’ 사토 유카리

보들은 거의 다 당선되었다.

고이즈미에 의해 ‘자객’으로 뽑힌 후보자는 모두 35명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여성 자객’으로 불린 여성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여성 후보들은 주로 중진의 거물급 남성 정치인의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는데 ‘미녀 자객단’, ‘미녀 돌격대’로 표현되면서 그녀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외모와 스펙으로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²¹ 가장 대표적인 ‘여성 자객’은 뉴스 캐스터 출신으로 환경대신을 맡고 있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고이케는 고이즈미의 지령을 받기 전 자신이 “재빨리 ‘자객’으로 입후보”²²하여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기를 든 4선 의원 고바야시 고키(小林興起)의 선거구에 공인되었다. 고이케 외에 여성 자객은 거물 정치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와 맞붙은 미국 유학과 간호사인 아베 도시코(阿部俊子), 외국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한때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노다 세이코(野田聖子)와 맞붙어 여성 후보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사토 유카리(佐藤ゆかり), 관료 출신으로 재무성 과장을 역임한(그

21 고이즈미의 ‘여성 자객’은 선거 전후 한국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고이즈미, 미녀돌격대로 ‘승부수’-우정 민영화 반대파의 대항마로 적극 활용」, 『국민일보』, 2005/08/25; 「‘여성 자객단’ 눈부신 활약」, 『한겨레』 2005/09/12; 「여성 ‘자객’들 내각도 점령한다」, 『경향신문』, 2005/09/12.

22 濱賀祐子, 「小池百合子」, 『日本の女性政治家と政治指導』, 志學社, 2013, 202쪽.

〈표 4〉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객’ 선거구 결과

선거구	우정 찬성파 후보			자민계 우정 반대파 전(前) 의원		
	정당	이름	당선 여부		이름	정당
北海道 10구	자민	飯島夕雁	△	×	山下貴史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青森県 4구	자민	木村太郎	○	×	津島恭一	국민신당
秋田県 2구	자민	小野貴樹	×	○	野呂田芳成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埼玉県 11구	자민	新井悦二	○	×	小泉龍司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東京都 10구	자민	<u>小池百合子</u>	○	×	小林興起	신당일본
東京都 12구	공명	太田昭宏	○	×	八代英太	무소속(자민당 탈당)
富山県 3구	자민	萩山教嚴	△	○	綿貫民輔	국민신당
福井県 1구	자민	稲田朋美	○	×	松宮勲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山梨県 2구	자민	長崎幸太郎	△	○	堀内光雄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山梨県 3구	자민	小野次郎	△	○	保坂武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岐阜県 1구	자민	<u>佐藤ゆかり</u>	△	○	野田聖子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岐阜県 4구	자민	金子一義	○	×	藤井孝男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岐阜県 5구	자민	和仁隆明	×	○	古屋圭司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愛知県 7구	자민	鈴木淳司	○	辞	青山丘	신당일본
静岡県 7구	자민	<u>片山さつき</u>	○	×	城内実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滋賀県 2구	자민	藤井勇治	△	×	小西理	무소속(자민당 탈당)
京都府 4구	자민	中川泰宏	○	×	田中英夫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大阪府 2구	자민	川条志嘉	○	×	左藤章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奈良県 1구	자민	鍵田忠兵衛	△	×	森岡正宏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奈良県 2구	자민	<u>高市早苗</u>	○	△	滝実	신당일본
鳥取県 2구	자민	赤沢亮正	○	×	川上義博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島根県 2구	자민	竹下亘	○	△	亀井久興	국민신당
岡山県 2구	자민	萩原誠司	△	사퇴	熊代昭彦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岡山県 3구	자민	<u>阿部俊子</u>	△	○	平沼赳夫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広島県 6구	무소속	堀江貴文	×	○	亀井静香	국민신당
徳島県 2구	자민	七条明	△	○	山口俊一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福岡県 10구	자민	<u>西川京子</u>	○	×	自見庄三郎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福岡県 11구	자민	山本幸三	△	○	武田良太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佐賀県 2구	자민	土開千昭	×	○	今村雅弘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佐賀県 3구	자민	<u>広津素子</u>	△	○	保利耕輔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선거구	우정 찬성파 후보			자민계 우정 반대파 전(前) 의원		
	정당	이름	당선 여부	이름	정당	
大分県 1구	자민	佐藤鍊	△	×	衛藤晟一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宮崎県 2구	자민	上杉光弘	×	○	江藤拓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宮崎県 3구	자민	持永哲志	×	○	古川禎久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鹿児島県 3구	자민	宮路和明	○	×	松下忠洋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鹿児島県 5구	자민	米正剛	×	○	森山裕	무소속(자민당적 유지)

주: ○ 소선거 구당선, △ 비례 부활 당선, × 낙선

‘여성 자객’은 이름에 굵은 글씨, 밑줄 표시

자료: 제44회 중의원의원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필자가 작성.

러나 ‘미스 도쿄대’ 출신이라는 것이 더 화제가 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전 중의원 의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공인회계사 히로쓰 모토코(広津素子) 등이다. 지역구에서 우정 반대파와 맞붙은 여성 후보들 외에도 고이즈미는 비례대표 상위에 변호사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요리 연구가 후지노 마키코(藤野真紀子), 제네바 군축회의 일본 대표부 대사를 지낸 이노구치 구니코(猪口邦子) 조치대(上智大) 교수와 같이 화제성 있는 여성 후보들을 공천했고, 이들도 지역구에 차출된 여성 후보들과 함께 ‘여성 자객’으로 불렸다.

〈표 4〉는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자민당 전 의원과 맞붙은 이른바 ‘자객’들의 선거 결과다. 지역구 낙선 후 비례대표로 부활당선²³한 후보까지 포함하여 35명 중 28명이 당선되었다. ‘자객’은 거의 대부분 당선되었고, 특히 화제를 모았던 ‘여성 자객’은 전원 당선되었다. 한편 이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신진 의원들은 모두 83명으로 ‘고이즈미 칠드런’이라고 불린다. 이들 83명의 ‘고이즈미 칠드런’은 당선 후 ‘83회’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23 일본에서는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중의원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소선거구와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복 입후보자는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순위와 득표율에 따라 비례구에서 당선되기도 하는데 이를 ‘부활 당선’이라고 한다.

3) 오자와 칠드런의 오자와 겔즈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고이즈미 칠드런’의 시대가 가고 ‘오자와 칠드런’이 주목을 받았다.²⁴ ‘오자와 칠드런’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선거 지도나 정치 교육을 시켜 국정 선거에 당선시킨 소장 의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1990년 제39회 중의원 선거 무렵 ‘도이 칠드런’과 더불어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1990년 제39회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오자와가 자민당의 선거전을 지휘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당선된 오자와를 추종하는 소장 의원들[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이오쿠 사다오(井奥貞雄), 고사카 겐지(小坂憲次), 사타 겐이치로(佐田玄一郎) 등]를 ‘오자와 칠드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오자와가 자민당에서 탈당하여 신진당 → 자유당 → 민주당으로 정당을 옮길 때마다 ‘오자와 칠드런’이 생겨났다. 특히 2003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탄생한 민주당에서 오자와는 선거 때마다 신인 후보를 발굴하여 당선시키면서 많은 새로운 ‘칠드런’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올리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것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다. 당시 민주당 간사장으로서 선거를 총지휘한 오자와는 143명의 신인 의원을 탄생시켰고, 이에 매스컴은 ‘오자와 칠드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²⁵

‘오자와 칠드런’ 외에도 오자와에게 발탁된 여성 정치인만을 지칭하는 ‘오자와 겔즈’ 혹은 ‘오자와 레이디’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오자와는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여성 자객’이 ‘홍행’에 성공하자,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의 거물급 남성 정치인의 선거구에 여성 후보를 공인하는 고이즈미의 선거 전략을 모방했다. 이들 여성 후보자들에 대해 매스컴에서는 종래의 ‘여성 자객’이라는 표현을

24 「選挙: 衆院選 小泉チルドレン退場 出馬77人, 当選は10人」, 『毎日新聞』, 2009/08/31; 「民主の新人候補, 7割が当選圏「小泉チルドレン」と明暗くっきり」, 『日本経済新聞』, 2009/08/21.

25 「選挙: 衆院選 一新会・刺客・比例単独, 「小沢チルドレン100人超」」, 『毎日新聞』, 2009/08/28; 「小沢グループ」120人に 最大派閥に強まる警戒感, 『産経新聞』, 2009/08/31; 「巨大民主(1)「小沢支配」膨らむ懸念」, 『読売新聞』, 2009/09/01.



〈그림 5〉 오자와 이치로와 대표적 ‘오자와 걸즈’ 아오키 아이

쓰기도 했지만, 주로 ‘오자와 걸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²⁶ ‘오자와 걸즈’는 2009년의 ‘신어·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오자와 걸즈’로 불린 여성 당선자는 초선 8명을 포함해 약 10여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오자와 걸즈’는 공명당 대표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의 선거구(도쿄 12구)에 출마한 전 참의원의원 아오키 아이(青木愛), 전 방위대신 규마 히사오(久間章生)의 선거구(나가사키 2구)에 출마한 20대 시민운동가 후쿠다 에리코(福田衣里子), 전 총리 모리 요시로(森喜朗)가 연속 14회 당선하여 ‘모리 왕국’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시카와 2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비서 출신의 다나카 미에코(田中美絵子), 4선 의원 히라사와 가쓰에(平沢勝栄)의 선거구(도쿄 17구)에 출마한 구의원 출신의 하야카와 구미코(早川久美子) 등이다.

오자와는 여성 후보의 선거구에 사설 비서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지원하였고, 이들 선거구는 선거 공시 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대부분이 당선되었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어도 석패율(惜敗率)로 부활 당선한 후보자도 많았다. 오타 공명당 대표가 아오키 아이에게 꽤

26 「特集ワイド: '09天下の秋 だれが呼んだか「小沢ガールズ」転身術のイロハ」, 『毎日新聞』, 2009/09/11; 「「真夏の雪子」は比例で当選「小沢ガールズ」へ」, 『産経新聞』, 2009/08/31; 「青木愛氏ら小沢ガールズ大躍進/衆院選」, 『日刊スポーツ』, 2009/08/31.

배해 낙선했고, 모리 전 총리는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겨 낙선은 면했으나 다나카 미에코가 석패율로 당선됨으로써 체면을 구겼다.

한편, 2009년 중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2010년에 치러진 제22회 참의원 선거에서 오자와의 천거로 당선된 여성 의원 다니 료코(谷亮子)도 ‘오자와 걸즈’로 불린다.

4. 여성 후보에 대한 평가

1) 매스컴의 반응

닛케이 텔레콤(<http://t21.nikkei.co.jp/>)에 ‘여성 자객’이라는 검색어로 일본 신문 중 ‘전국지’(全國地)를 대상으로 검색을 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5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 중 기사 제목에 ‘여성 자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나 여성 후보자를 주제로 한 기사만을 추려보면 <표 5>와 같다. 기사의 내용은 주로 여성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거물급 남성 의원과의 대립구도에서의 선거 ‘홍행’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전국지에서 ‘여성 자객’이라는 표현은 2009년 제45회 중의원 선거를 끝으로 찾아볼 수 없었다.

2) 후속 선거 결과를 통한 평가

(1) 도이 칠드런

1989년 제15회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의 공인·추천을 받아 출마하여 ‘마돈나 선풍’을 일으키며 당선됐던 ‘도이 칠드런’은 6년 후 어떻게 됐을까.²⁷ <표 6>은 1995년 실시된 제17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참조로 작성한 것이다. 선거 실시 전에 게재된 기사이므로 선

²⁷ 참의원원의 임기는 6년이나 참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242명의 1/2을 대상으로 3년마다 반수개선(半数改選)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1989년 제15회 참의원 선거의 당선자가 재출마한 경우, 다음 선거는 6년 후인 1995년 제17회 참의원 선거가 된다.

〈표 5〉 여성 후보자에 대한 일본 신문(전국지) 기사(2005~2012년)

기사 제목	게재일	보도매체
철저 분석: 반대파에 대한 '자객'	2005/08/20	마이니치신문 (석간)
특집 WORLD: 지금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여성 후보자	2005/08/26	마이니치신문 (석간)
2005 중의원 선거·100인 설문: 규슈·야마구치의 소리-여성 자객, 50인 "노"(No)	2005/08/27	마이니치신문 (조간)
중의원 선거: 우정 반대파 역풍 속 의석 쏜개짐-자객 후보 속속 당선	2005/09/12	마이니치신문 (조간)
화제 '여성'	2005/09/30	산케이신문 (석간)
특집: 「열린 신문」위원회 좌담회(2) '자객' TV 독무대	2005/10/14	마이니치신문 (조간)
올해의 유행어: 초만원 「고이즈미 극장」 "배우"들에게도 주목	2005/12/19	요미우리신문 (조간)
고이케 전 방위대신에 민주, 여성 자객-도쿄 10구에 전 도쿄대 특임준교수 응립	2007/12/19	산케이신문 (조간)
【2009 중의원 선거】민주 표적은 '공명의 거물' 오타 대표에 여성 자객-도쿄 12구	2009/07/25	산케이신문 (조간)
여당 거물에 민주 마돈나 자객-전 켄, 전 아나...	2009/07/29	요미우리신문 (조간)
기로의 여름: 2009 중의원 선거-이시카와 2구 자민 아성에서 '서민혁명' 민주당이 여성 자객	2009/08/02	마이니치신문 (조간)
【2009 중의원 선거】선거 구도(4) 4선·히라사와 씨에 도전하는 여성 자객	2009/08/07	산케이신문 (조간)
중의원 선거: 민주·오자와 씨, 후쿠다 전 수상의 '자객' 격려, 공시 후 처음 군마 4구 방문	2009/08/25	마이니치신문 (조간)

자료: 日経テレコン(<http://t21.nikkei.co.jp/>) 검색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거 결과는 필자가 조사하여 추가하였다. '도이 칠드런'으로 분류되는 여성 의원들은 〈표 6〉에 나와 있는 인물들보다 더 많이 있지만, 〈표 6〉에서는 1989년에 도이에 의해 정계에 입문하여 첫 당선된 여성 의원들만을 다루고 있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3명의 '도이 칠드런' 중 1995년 선거에서 사회당의 공인을 받아 출마한 후보는 겨우 5명, 추천까지 합쳐도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당적을 옮기거나 제명, 정계 은퇴로 사회당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되었다. 선거 결과, 6년 전의 '마돈나'들 중 단 4명만이 당선되었는데, 지역구 당선자는 한 명도 없고 4명

〈표 6〉 ‘도이 칠드런’의 1989년과 1995년 비교

이름	(연령)	1989년 선거 당선자	1995년 선거 후보자	1995년 선거 결과
		선거구·공인<추천>	선거구·공인<추천>	
竹村泰子	(61)	北海道·무<사·셀>	비례·사 5위	당선
前畑幸子	(57)	愛知·<사>	탈당, 무<사>	낙선
笹野貞子	(62)	京都·연<사·민·공>	京都·민개<공>	낙선
森暢子	(63)	岡山·사	岡山·사	낙선
乾晴美	(60)	徳島·연<사·민>	徳島·민개<사>	낙선
西岡瑠璃子	(61)	高知·사	제명, 무	낙선
篠崎年子	(77)	長崎·사<진>		은퇴
紀平梯子	(67)	熊本·무<사>	熊本·무	낙선
日下部禧代子	(59)	비례·사 4위	비례·사 1위	당선
堂本暁子	(62)	비례·사 9위	비례·사기 2위	당선
清水澄子	(67)	비례·사 12위	비례·사 8위	당선
肥田美代子	(54)	비례·사 15위	비례·사 10위	낙선
三石久江	(67)	비례·사 20위	제명	은퇴

주: 1) 사=사회당, 셀=셀러리맨신당, 공=공명당, 사카=신당 사키가케, 연=연합회, 민개=민주개혁연합, 진=진보당, 무=무소속.

2) 〈 〉 안은 추천·지지.

자료: 「除名・くら替え…社党女性議員, 荒波の6年(95せんきょ前線)」, 『朝日新聞』 1995/07/15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의 당선자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결과적으로 1989년에 당선된 여성 의원들은 경력의 연속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2) 고이즈미 칠드런

‘고이즈미 칠드런’도 후속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제43회 중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83명이 당선된 ‘고이즈미 칠드런’은 2009년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90%가 낙선했다.²⁸ 2005년 『아에라』(AERA)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4년 후를 그대로 예견하고 있다

28 「小泉チルドレン「9割落選」政権選択の夏, 前回選挙で83人当選」, 『AERA』, 2009/08/03.

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특별국회가 시작된 2005년 9월 21일, 중의원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은 가토 고이치(加藤宏一) 씨는 앞자리를 메운 83인의 ‘고이즈미 칠드런’을 바라보며 옆 자리의 아마자키 다쿠(山崎拓) 씨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들 때는 신인이 38명이었지. 저 83명 중 다음 선거에서는 40명 남으려나?”
그러자 아마자키 씨가 대답했다.

“20명 남으면 성공 아닌가? 버블이야.”²⁹

아마자키가 예측한 대로 실제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4년 전 ‘고이즈미 칠드런’의 상징으로 불렸던 유명 후보들도 고전하면서 자민당을 탈당하거나 출마를 단념하기도 했다. <표 7>은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자객’으로 활약했던 여성 의원들의 2009년 선거 결과를 조사한 것이다. 8명의 대표적 ‘여성 자객’들은 2009년에도 전원 출마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우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단 한 명에 불과하고 7명은 낙선했다.

<표 7> 2005년 ‘여성 자객’의 2009년 중의원 선거 결과

이름	지역구		정당	2009년 선거 결과
	2005년	2009년		
小池百合子	東京都 10구	동일	자민	지역구 낙선 후 비례 부활 당선
稲田朋美	福井県 1구	동일	자민	당선
佐藤ゆかり	岐阜県 1구	東京都 5구	자민	낙선
片山さつき	静岡県 7구	동일	자민	낙선
高市早苗	奈良県 2구	동일	자민→민주	지역구 낙선 후 비례 부활 당선
阿部俊子	岡山県 3구	동일	자민	지역구 낙선 후 비례 부활 당선
西川京子	福岡県 10구	동일	자민	낙선
広津素子	佐賀県 3구	동일	자민→다함께당	낙선

자료: 제44회 중의원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필자가 작성.

29 「山拓のフェロモン人脈 勢力拡大で女性刺客も次々」, 『AERA』, 2005/10/17.

단, 고이케 유리코, 아베 도시코, 다카이치 사나에(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는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하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이즈미 칠드런’ 중의 한 명인 다이라 마사아키(平将明)³⁰는 첫 당선 후 가진 인터뷰에서 ‘고이즈미 칠드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고이즈미 칠드런’이라는 용어에는 저항감이 있다. ‘칠드런’이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맹종(盲從)하는 이미지,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 마스크에서는 아무래도 83명이 다 뜻대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 우리들이 역사적 사명을 해내겠다는 각오에 달려 있다. 역시 그것이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렇게 안 된다면 영원히 ‘칠드런’일 뿐이다.³¹

그러나 ‘칠드런’의 한계를 벗고 일본정치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고자 했던 초선 의원의 당찬 포부는 3년 후 다음과 같은 회한으로 바뀌었다.

83명이나 있으므로 하려고 하면 정치 변화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많은 의원들이 고이즈미, 다케베(武部勤 당시 자민당 간사장)의 부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1기로 끝난다면 결국은 사회당의 ‘마돈나 붐’과 같은 것이다.³²

(3) 오자와 칠드런

고이즈미의 ‘여성 자객’처럼 몰성인지적이면서 특정인에 종속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는 ‘오자와 겔즈’도 마찬가지다. 도쿄 12구에서 공명당 대표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를 꺾고 당선된 아오키 아이(青木愛)의 발언은 ‘오자와 겔

30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도쿄 4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

31 「硬派 小泉チルドレンに聞く」, 『フィナンシャル・ジャパン』, 2006년 1月号.

32 「小泉チルドレン「壊滅リスト」」, 『AERA』, 2009/07/27.

즈'가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한다. 아오키는 본인이 “‘오자와 칠드런’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³³고 말했다.

오자와는 2012년에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도 ‘국민생활이 제일’당, 일본 미래당, 생활당으로 창당과 해산을 거듭했다. 2012년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 오자와는 일본미래당 신인후보로 ‘(신)오자와 겔즈’ 3명을 공천하지만 3명 모두 낙선한다. 그 중 이와테(岩手) 1구에 출마한 닷소 요코(達増陽子)는 부부가 모두 ‘오자와 칠드런’인 경우로, 남편은 ‘오자와 왕국’으로 불리는 이와테 현의 지사인 닷소 다쿠야(達増拓也)다. 한편 ‘오자와 겔즈’ 중 오자와와 함께 일본미래당으로 옮긴 후보들은 아오키 아이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낙선했다.³⁴ 오자와를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은 ‘오자와 겔즈’도 전원 낙선했다.³⁵ 이에 따라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오자와 겔즈’는 정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5. 맺으며

일본의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지의 사실인 여성 과소 대표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인의 충원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이 칠드런’, ‘고이즈미 칠드런’, ‘오자와 칠드런’과 같이 새로 정계에 입문하는 정치인들이 거물급 정치인의 아이들(혹은 자식들)로 불리고 인식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정치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적’ 정치문화는 철저한 파벌주의와 가부장적 정치문화에 기인하고

33 「東京12区・青木氏「小沢チルドレンで光栄」, 『MSN産経ニュース』, 2009/08/31.

34 아오키 아이(青木愛, 도쿄 12구)는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 낙선한 ‘오자와 겔즈’는 미야케 유키코(三宅雪子, 지바 4구), 오키모토 에이코(岡本英子, 가나가와 3구), 오타 가즈미(太田和美, 후쿠시마 2구), 교노 기미코(京野公子, 아키타 3구), 히메이 유키코(姫井由美子, 지바 8구).

35 다나카 미에코(田中美絵子, 도쿄 15구),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桜里, 아이치 7구), 나카바야시 미에코(中林美恵子, 가나가와 1구), 나가에 다카코(永江孝子, 에히메 1구), 에바타 다카코(江端貴子, 도쿄 10구).

있다. 물론 사회당의 ‘도이 칠드런’을 ‘고이즈미 칠드런’이나 ‘오자와 칠드런’과 같이 엮어서 파벌주의와 가부장주의로 비판하는 데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칠드런’의 성격에 대해서도 도이 다카코는 ‘여성 자객’과 ‘마돈나’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다.³⁶ 도이는 “당시의 마돈나는 남성 중심의 낡은 국회 체질을 바꾸어 정치 속에 ‘생활’이 살아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떨쳐 일어선 여성들이지만, (여성 자객들은) 고분고분하게 고이즈미 씨를 따르는 예스 우먼들로 고이즈미를 위한 역할을 할 뿐”이라고 평가하고, 여성 자객들이 “국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성 자객’에 대한 도이의 비판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정치 개혁적 성향과 페미니즘이라는 기준에서 ‘도이 칠드런’의 마돈나와 ‘고이즈미 칠드런’의 ‘여성 자객’, 아울러 ‘오자와 칠드런’의 ‘오자와 겔즈’와의 차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들 세 그룹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여성 정치인의 충원이 당수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여성 자객’이나 ‘오자와 겔즈’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마돈나’도 비록 그녀들이 개혁적 성향의 페미니스트로 당시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여성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녀들의 충원이 당시 사회당 당수였던 도이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당수 개인의 선택을 통한 정치 참여는 당수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언제까지나 자립할 수 없는 ‘칠드런’으로서의 한계를 갖게 된다.

둘째, ‘칠드런’으로 의회에 진출한 여성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후속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의원 경력의 단절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해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당선이 일시적 불이나 화제에 편승한 결과였

36 「独占 土井たか子さん インタビュー 「刺客とあのときのマドンナは全然違います」」, 『週刊朝日』, 2005/10/14.

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는 ‘고이즈미 칠드런’의 다이라 마사아키가 “(고이즈미 칠드런이) 1기로 끝난다면 결국은 사회당의 ‘마돈나 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마돈나’ 역시 ‘여성 자객’, ‘오자와 겔즈’와 마찬가지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후속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도이 붐’에 편승한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이상과 같은 문제점 속에서 필자는 작지만 큰 희망을 발견한다. 그것은 세 그룹의 여성 정치인들이 당해 선거에서 ‘개혁’의 상징이었다는 것이다. 도이, 고이즈미, 오자와와 같은 일본 정치사의 거물 정치인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운 건 바로 다름 아닌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도이와 달리 고이즈미나 오자와가 여성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목적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의 ‘홍행’을 위해서였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여성 후보를 앞세운 선거는 유권자들에게도 받아들여져 ‘홍행’에 성공했고 여성 후보들은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문제는 그것이 이 글에서 다룰 정도로 예외적 현상이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의 당선이 더 이상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여성 ‘정치세력’이 될 때 비로소 특정 정치인의 ‘칠드런’에서 벗어나 ‘자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공한 여성 정치인에 맞추었던 관심의 초점을 여성(강제)할당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화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넘기만 해서는 그 벽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벽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벽을 없앨 수 있는지, 당장 없애지 못한다면 우선 벽을 낮출 수는 없는지를 여성들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국민일보』, 『정책뉴스』, 『한겨레』
- 『朝日新聞』, 『産経新聞』, 『日本経済新聞』, 『毎日新聞』, 『読売新聞』, 『週刊朝日』, 『AERA』, 『フィナンシャル・ジャパン』
- 권영주(2013), 「일본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현상과 제도: 왜 무소속이 많은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 신경애(2007), 「일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과 과제」, 『日本文化研究』 第24輯.
- 이지영(2013),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인가」,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3호.
- 정미애(2007), 「도이 다카코: 평화헌법과 결혼한 일본 진보정치의 대모」,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인간사랑.
- 정미애(2013),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2011), 『男女共同参画白書(平成 23年版)』.
- 濱賀祐子 編(2013), 『日本の女性政治家と政治指導』, 志學社.
- 五十嵐暁郎・ミランダ A. シュラーズ(2012), 『女性が政治を変えるとき-議員・市長・知事の経験』, 岩波書店.